

회원사소개

알미늄 주물 제작에 대표기업

(주)동남물산

중전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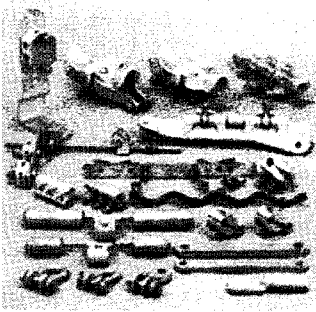
대표이사 이 병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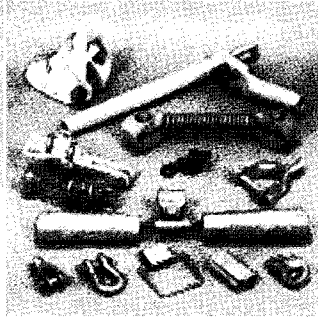
(공 장 전 경)

동남물산은 설립자인 이병균 사장이 한전에 근무할 당시 전력용기자재 국산화업무를 담당 하던 중 중전기용 기자재의 국산화 및 개발의 중요함을 느껴 20여년간 봉직하던 한전을 퇴직하고 1984년에 창업하여 현재 60여명의 종업원에 연간 매출액 120억원으로서 이중 40 억원을 수출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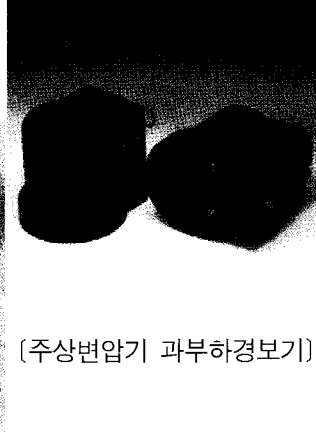
회원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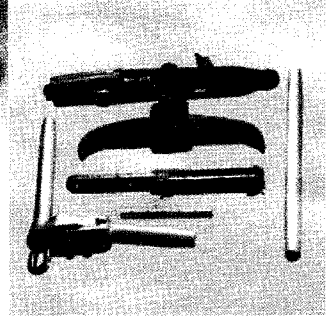
[배전용 금구류]



[송전용 금구류]



[주상변압기 과부하경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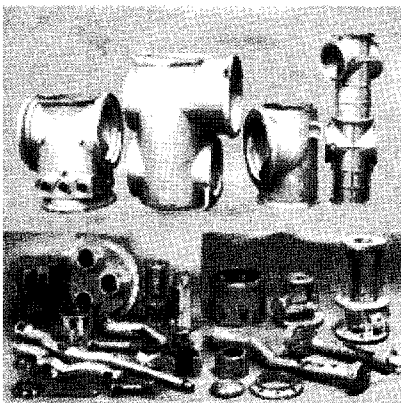
[OPGW 금구류]

GIS 알미늄외함 국내 최초로 국산화 성공

동남물산은 창업 초기 송변배전용 금구류를 주로 생산하면서 오로지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없이는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신념 하에 1993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 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각종 금구류 및 주상변압기 과부하 경보기, 배전선로 고장구간표시기를 개발하였으며, 전력공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스절연변전소(GIS)의 알미늄외함과 내부도체류를 중전기업체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자체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GIS용 알미늄외함은 420kV급까지 개발하여 일본은 물론 유럽의 중전기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알루미늄 외함 및 도체류]

2003년 GIS 개발, 중전기 제작업체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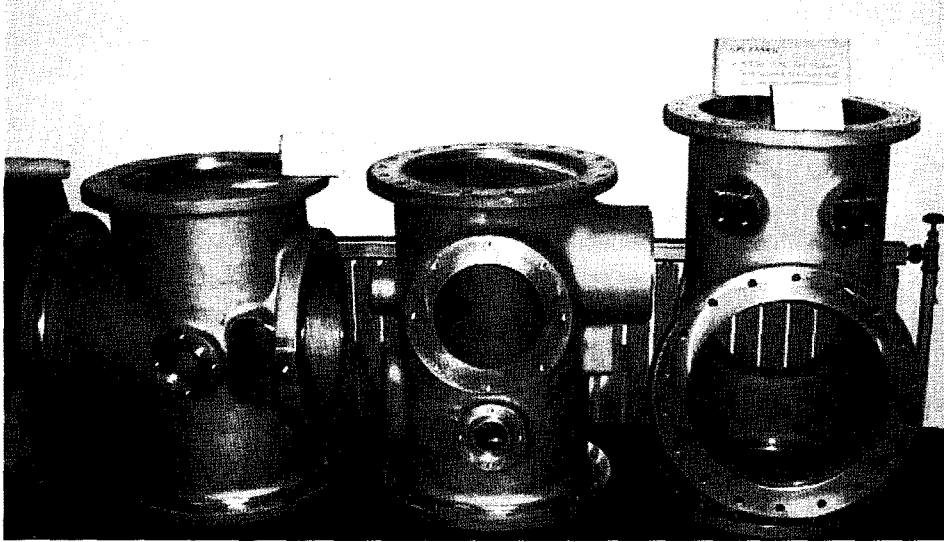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중전기기용 각종 부품의 생산경험과 자체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2003년 1월에는 25.8kV GIS를 개발 완료하여 한전에 납품을 시작함으로써 동남물산은 명실상부한 종합 중전기 제작업체로 발돋움 하고 있다.

동남물산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품질의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불량감소는 물론 고객의 신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1988년에 KS 취득(알미늄배선용 인장크램프), 1995년 GIS용 알미늄외함의 EM마크획득과 1995년에는 ISO9001을 취득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의 거래처로부터도 동남물산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중전기업체에 무검사 납품하고 있다.



[25.8kV GIS]

회원사 소개



[수출용 알루미늄 외함]

기자재 품질 해외시장에서 호평

동남물산은 국내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시장을 향한 영업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히다찌, 미쓰비시, FUJI등 중전기업체에 GIS용 알미늄외함과 내부도체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NGK, 아사히테크 등에 송배전금구류를 수출하여 년 간 40억원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GIS용 알미늄외함에 대하여는 유럽의 ABB, 시멘스로부터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남물산은 GIS용 알미늄외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중전기 생산기술 유공자표창 수상 및 부품소재기술상 수상을 비롯하여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R&D분야 벤처기업선정,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벤처기업선정 및 산자부로부터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인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